



Poland

폴란드사무소

채식인구의 확대 더불어 관련법 신설하는 유럽

바르샤바, 세계 11위의 비건 친화도시

유럽에서 채식주의는 가히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유럽지역에서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폴란드 또한 최근 5년간 관심도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채식주의자들의 정보 사이트인 'Vegan World'에 의하면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비건 친화적인 도시

순위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등에 이어서 11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7년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의 채식주의자는 전체의 11%에 달하고, 그중 10%는 비건이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건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식주의의 트렌드가 폴란드 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채식주의에 대한 새로운 표기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조고기 식품에는 고기관련 명칭 사용 불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럽의회 농업위원회(EU's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GRI)는 2019년 4월 초, 인조고기를 사용한 식품에 '버거'와 '스테이크', '소시지'와 같은 고기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버거와 스테이크, 소시지 등의 명칭은 반드시 동물의 식용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이다. 이에 따라 유럽 채식 식품업계에서는 '채식 버거'라는 명칭 대신 '채식 디스크(veggie disc)', '채식 소시지'나 '두부 스테이크' 대신 '채식 튜브', '콩 슬라이스'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만 한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위원회에서는 제품 선택 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식적인 법안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 및 환경단체에서는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내보였다. "Vegan steak에 고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또

한 유럽의회 일각에서는 "젊은 소비자층이 육식을 멀리하는 데 불안을 느낀 육류업계의 입김이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닐까"며 해당 법안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채식 식품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업계와 해외 식품업계로까지 큰 반향을 일으킬 이 법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폴란드에 비건식품 및 기타 식품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비건 인증, 유로라벨 취득과 함께 새롭게 통과된 표기 법안에 따라 수출품 라벨링 및 패키징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

Key Point

유럽 채식주의시장 길 넓어진 만큼 관문도 늘어

- 해당 법안의 실효까지는 약 1년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첫 시범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과 관련 업계의 움직임에 따라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당 법안의 흐름 및 현지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식 인구가 늘어난 만큼 채식주의시장의 진입로도 넓어진 셈이지만 새로운 법안 채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늘어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